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021228-0180

光州日報

VIP 30인 생로병사 영수증 www.dhankob.com
생존년의 연인,
엄앵란이 빛이됩니다.
 대표강담현호 장영환
 광주지사 0621228-3222

The Kwangju Ilbo

한국 국가경쟁력 추락

29위→38위로...中·인도·태국보다 뒤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 발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9계단이나 추락해 세계 38위로 밀려났다. 11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06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61개 국가·지역 가운데 38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지난해의 29위보다 9계단이 후퇴한 것이다.

한국 경쟁력 하락은 IMD가 국가의 경제운영성과와 정부 효율성 사이에 현저한 갭이 존재하며 한국정부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또 환율과 고유가 등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도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2년에는 29위를 기록했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37위로 추락했고 2004년에도 35위에 그쳤고 지난해에야 겨우 2002년과 같은 29위로 회복했다.

주요국 경쟁력 순위·평점

1	미국	100
2	홍콩	96.866
3	싱가포르	90.993
4	아이슬란드	90.206
5	영마크	86.031
6	호주	82.501
7	캐나다	81.689
8	스위스	81.541
9	룩셈부르크	81.513
10	핀란드	80.894
38	한국	57.680

올해의 순위는 근년들어 최악이다. 경쟁력 1위인 미국을 100점 만점으로 한 한국의 상대평점도 57.680으로 지난해의 64.203보다 크게 떨어졌다. 종합 순위 외에도 인구 2천만 이상의 국가·지역을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는 지난해 1위에서 올해는 16위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 달러 이상인 국가·지역을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는 24위에서 30위로 각각 하락세를 보였다.

아시아 국가·지역의 종합 순위를 보면 홍콩과 싱가포르가 지난해와 같은 2, 3위를 지키며 세계적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고, 일본도 21위에서 4계단이 상승했다. 대만(18위)과 중국(19위), 말레이시아(23위), 인도(29위), 태국(32위), 중국 저장성(33위) 등도 한국을 앞서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는 순위가 12계단과 10계단이 각각 상승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의 종합 평가에서는 미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위를 차지했고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아이슬란드(4위)와 덴마크(5위), 호주(6위), 캐나다(7위), 스위스(8위), 룩셈부르크(9위), 핀란드(10위) 등이 톱 10에 포함됐다. /이종태기자 jilee@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는 10일 낮 '광주·전남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선언식'을 가졌다. 앞줄 사진 왼쪽부터 박정순 전 광주여협 회장, 윤순홍 인간교육연구원 이사장, 한완석 원로목사, 방철호 대표, 오주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회장, 김성대 광주·전남재향군인회장, 김정록 광주시 태권도협회장, 도산 대각사 주지스님. /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208개 시민·사회단체 '광주 평화도시' 선언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와 민족통일대축전이 열리는 광주를 '평화의 도시'로 승화시키자고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대표회장 방철호·이하 총연합회)는 10일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수장관광호텔에서 '광주·전남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선언'식을 갖고, 민주·인권·예합의 도시로 알려진 광주를 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하자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기자회견문에서 "광주와 전남은 임진왜란을 막아낸 원동력이 된 곳이며 일제시대에는 항일 독립운동들, 80년 5월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곳"이라며 "문화수도 발돋움

하는 광주의 이미지에 '평화'까지 추가하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연합회는 또 "최근 광주·전남에서 있었던 화물연대 시위와 현대하이테크 순천공장 사태, 수입쌀 일감 문제 등은 광주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일련의 사건"이라며 "더 이상의 불발과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지역민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광주의 20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선언식에는 한완석 광주시 기독교교단협의회 고문 등 지역 원로 인사들이 참석해 총연합회의 선언을 지지했다. /임주형기자 jhljm@kwangju.co.kr

社告

내일 광주서 '중산층 포럼'

중산층 투표 행태·지역정치 역할 분석

한국 중산층의 정치·사회 의식을 살펴보는 '중산층' 포럼이 12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한국의 중산층, 개혁적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광주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사회학회가 공동 주최합니다. **내일 광주서 '중산층 포럼'** 중산층 투표 행태·지역정치 역할 분석

- 일시: 5월 12일(금) 오후 1시~8시
-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발제: 김호기 연세대 교수(중산층과 이종적 시민사회) 정철희 전북대 교수(포스트모더니티, 신중간계급, 새로운 정체성) 초의수 신리대 교수(중산층과 지역주의) 김영태 목포대 교수(중산층의 투표행태)
- 지정토론: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조대열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장세훈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 이명진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조경완 광주일보 논설위원, 전영기 중앙일보 정치부문 부장

- 주최: 한국사회학회, 光州日報, 중앙일보
- 주관: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포럼위원회, 전남대 사회학과
- 후원: 미래에셋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http://www.kwangju.co.kr | 전화: (062)220-0541, 222-8111

"화원관광단지, J프로젝트에 포함을"

관광공사, 건교부·전남도 등에 건의

해남 화원관광단지를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관광공사는 10일 화원관광단지를 J프로젝트에 포함시켜 개발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 다음주

중 전남도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말부터 전남도와 문광부 등에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나 특별한 답변을 듣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문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3면>

관광공사 측은 J프로젝트의 경우 기업도시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됨으로써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화원관광단지가 J프로젝트에 포함될 경우 이들 지원을 발판삼아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건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화원관광단지는 기업도시특별법보다 지원의 수준이 훨씬

J프로젝트·화원관광단지 위치도



낮은 관광진흥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J프로젝트 개발부지가 늘어난다는 점이 다소 부담이 되지만 투자자만 나선다면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전국 가구 소득격차 사상 최대

상·하위층 8.36배

전국 가구의 소득 격차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의 수준으로 벌어졌다. <관련기사 11면>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 소득 순위별로 20%씩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5분위 소득을 1분위로 나

눈 소득배율은 8.36배로 나타났다.

전국 가구의 소득배율은 1·4분기 기준으로 2003년 7.81, 2004년 7.75, 2005년 8.22 등으로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배율은 5.80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5.87과 비교했을 때 조금 개선됐지만 사실상 별다른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롭고 투명한 경영으로
 세기 기반보청기 기술에 힘쓰고 있다

Upgrade 세기보청기

한국인 전용·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